

# 밀리의 서재

장하나

# 목차

1

주제 선정

2

기획

#FONT  
#페르소나

3

UI 설계

#와이어프레임  
#프로토타입

4

UI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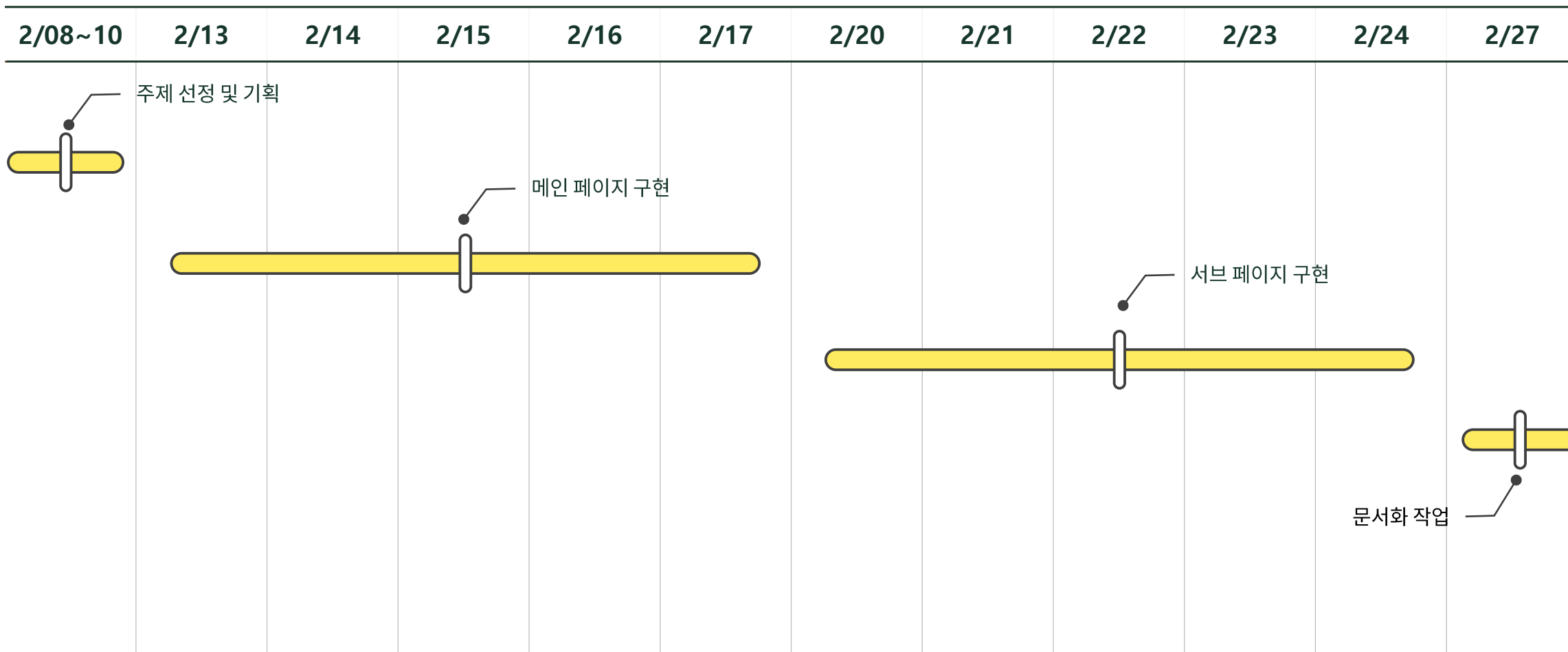
#MAIN  
#SUB

5

평가

#소감

# 타임라인



# 1. 주제 선정



## 2. 기획 #FONT

h1,h2,h3,h4,h5,h6

스포카한산스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그 외

### 1. 수트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 2. 나눔스퀘어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 3. 프리텐다드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 2. 기획 #페르소나



### 최서현

반에서 항상 독서왕을 할 정도로 책을 좋아한다.

혼자서 도서관과 서점에 가서 책 읽는 걸 좋아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기 힘들어져 집에서 책을 읽기 위해 책 구매 사이트를 방문하게 되었다.

#### 정보

나이 23세  
직업 대학생  
성격 조용함, 꼼꼼함

#### 목표

- 정보들을 한 눈에 볼 수 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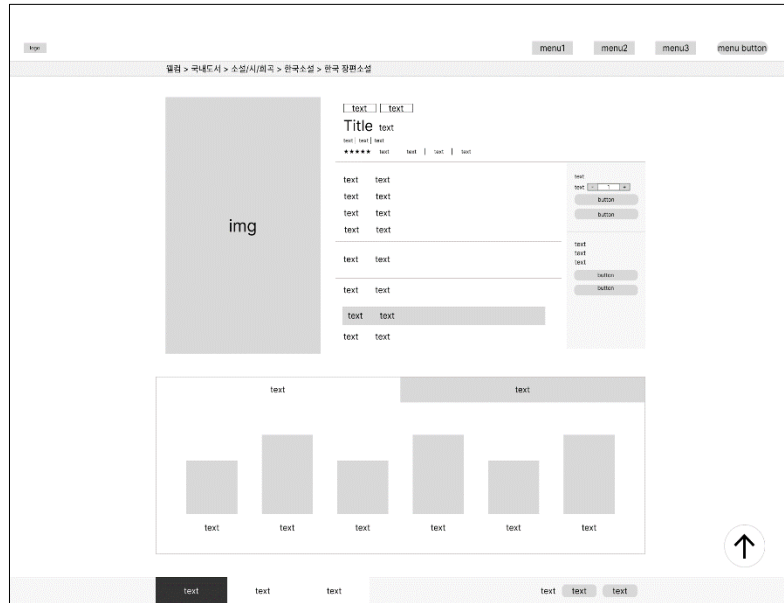
#### 성향

꼼꼼함 ☒  
조용함 ☒  
집중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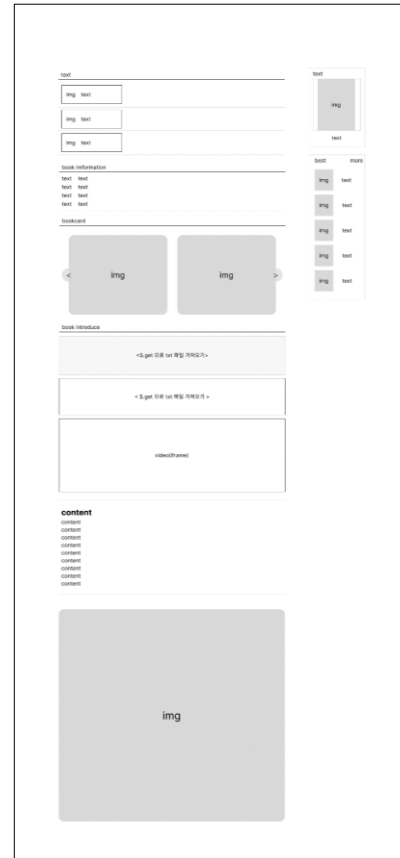


# 3. UI 설계 #와이어프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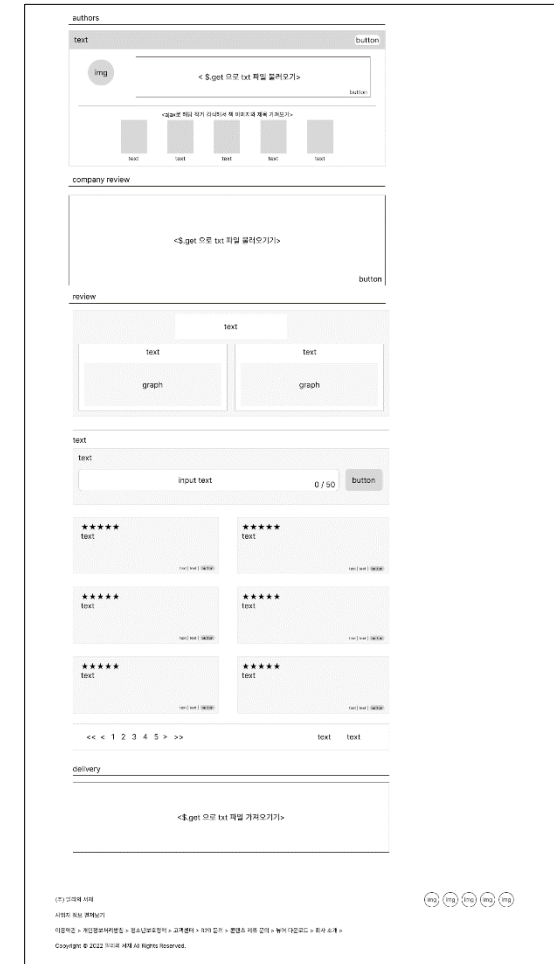
[Sub1]



[Sub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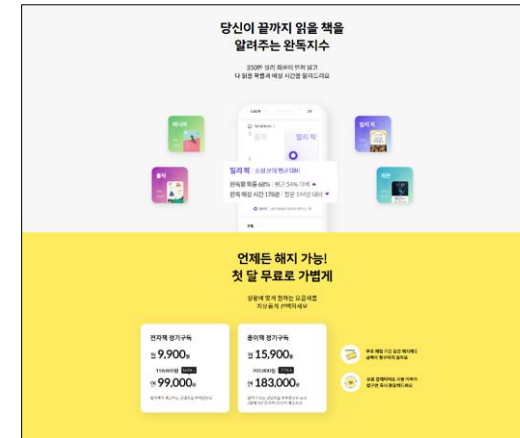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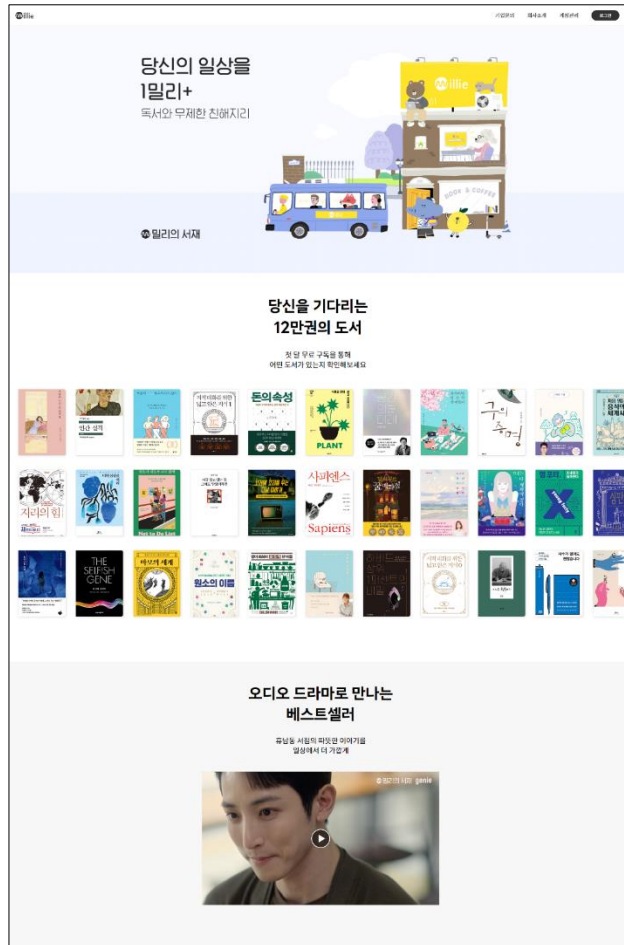
[Sub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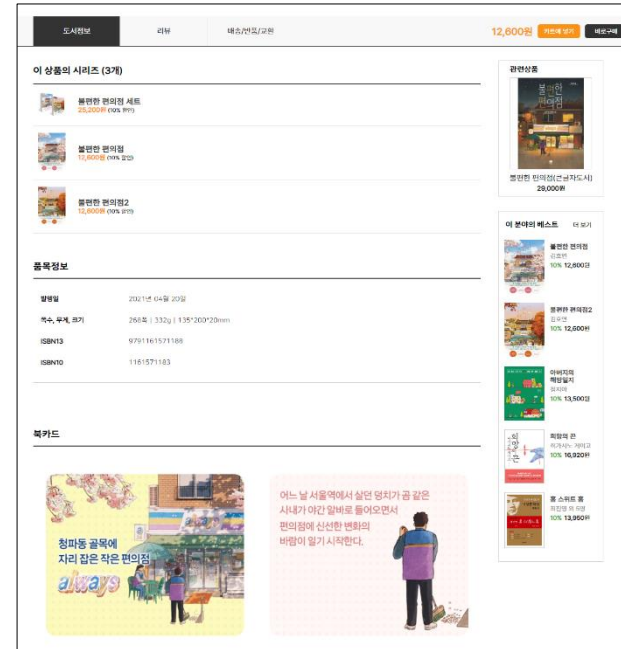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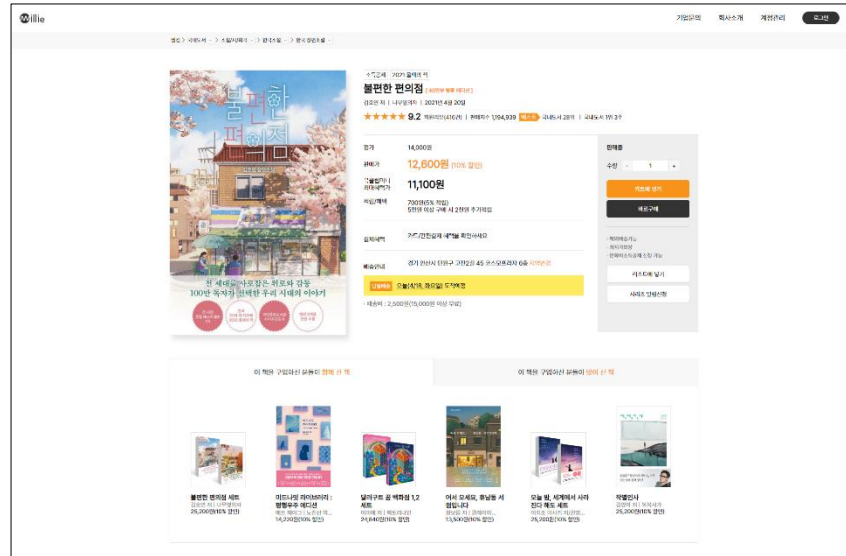


# 3. UI 설계 #프로토타입 - MAIN

## [AJAX로 책 내용 불러오기]



# 3. UI 설계 #프로토타입 - SUB



[\$.get으로 txt 가져오기]

## 책 소개

### MD 한마디

동네 골목의 작은 편의점을 배경으로 실의 회로애락을 따뜻하고 유머러스하게 그린 소설. 서울에서 살다가 우연한 기회에 편의점에서 일하게 된 한 인물과 거리의 사연을 안고 편의점을 찾는 이들의 이야기가, 그 속에서 자신 하루를 위로하는 편의점의 밤이 열린다. -소설MD 박형욱

누적 판매 40만부 돌파, 2022년 가장 사랑받는 소설  
★★★전 서울 종합 베스트 1위, 2021 올해의 책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추천도서, 해외 6개국 판권 수출

불편한데 자꾸 가고 싶은 편의점이 있다  
힘들게 살아낸 오늘을 위로하는 편의점의 밤  
정체불명의 알바로부터 시작된 웃음과 감동의 나비효과  
'망원동 브라더스' 김효연의 '동네 이야기' 시즌 2

2013년 세계문학상 우수상 수상작 '망원동 브라더스'로 데뷔한 후 일상적 현실을 위로 있게 그린 경쾌한 작품과 인간의 내밀한 욕망을 기묘한 상상력으로 풀어낸 소설이 장르를 오가며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열어왔던 작가 김효연. 그의 다섯 번째 장편소설 '불편한 편의점'이 출간되었다. '불편한 편의점'은 청파동 골목 오동이에 자리 잡은 작은 편의점을 무대로 일어난 사연을 살피는 우리 이웃들의 삶의 속내와 회로애락을 따뜻하고 유머러스하게 담아낸 작품이다. '망원동 브라더스'에서 망원동이라는 공간의 제철적 차이를 잘 활용해 유쾌한 재미와 공감을 이끌어냈듯 이번에는 서울의 오래된 동네 청파동에 대한 공감각을 생생하게 표출해 또 하나의 흥미진진한 '동네 이야기'를 탄생시켰다.

서울역에서 노숙인 생활을 하던 독고라는 남자가 어느 날 70대 여성의 지갑을 주워준 인연으로 그녀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당차고 공 같은 이 사내는 알고를성 치매로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데다 말도 어눌하고 행동도 궁며 과연 손님을 제대로 상대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게 하는데 땀결, 의외로 그는 일을 꽤 잘해낼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묘하게 사로잡으면서 편의점의 밤을 지키는 든든한 일꾼이 되어간다.





현실감 넘치는 캐릭터와 그들 간의 상호작용을 정답가경으로 형성하는 데 일가견이 있는 작가의 작품답게 이 소설에서도 독특한 개성과 사연을 지닌 인물들이 차례로 등장해 서로 뒤얽히며 벌인 관계를 형성해간다.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다 정년퇴임하여 역사에 고사 본능이 발동하는 편의점 사장 임 여사를 필두로 20대 학동생 알바 사원 50대 생계형 알바 오 여사, 매일 밤 야와 데이밤에서 잠잠잠(잠깨려면 잠기김만, 김이슬) 세트로 혼술을 하며 하루의 스트레스를 푸는 회사원 경만,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청파동에 글을 쓰려 하는 30대 화가작가 인경, 호시탐탐 편의점을 팔아치울 기회를 엿보는 임 여사의 아들 민식, 민식의 의뢰를 받아 복고의 뒤를 가는 사설 탐정 라이크 그들이다. 제각기 녹록지 않은 인생의 무게와 현실적 문제를 안고 있는 이들은 각자의 사선으로 독고와 관찰하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와 대립, 충돌과 반전. 이해와 공감은 자주 폭소를 자아내고 어느 순간 울컥 눈시울이 붉어지게 한다. 그렇게 골목길의 작은 편의점은 불편하기 짝이 없는 곳이었다가 고단한 삶을 위로하고 웃음을 나누는 특별한 공간이 된다.



### 3. UI 설계 #프로토타입 - SUB

## [\$.get으로 txt 가져오기]

[illegible]

자주 소개	
<p>지자 : 김조연</p>  <p>영화 영화 소품을 만들때는 온갖 아이디어를 써나가는 천천후 스토리텔러. 1974년 서울생. 고려대학교 문헌학과에서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첫 직장인 영화사에서 공중 책임관 사내리로 ‘미증검정기’ 영화화제와 시사회로 출연한 작가 되었다. 두 번째 직장은 출판사에서 영화 기획자로 참여해 한 ‘살얼면지다.’가 제1회 최민정필모작으로 공연하면서 대상을 수상하며 단체의 작가가 되었다. 같은 출판사 소설 편집자로 남의 소품을 만드다가 글이 전문 작가로 나섰다. 이후 몇 년 내직을 다녔고 글쓰기를 살려낸 중 장편소설 『영향론 브르디스』로 2013년 제9회 세계문학상을 수상하며 소설가가 되었다.</p>	<p>전남김포</p>
     <p>물결만 편지집 2(한돌 에디션)</p> <p>물결만 편지집(40만 부기념 특별 에디션)</p> <p>망방론 브르디스</p> <p>김조연의 작업실</p> <p>영적</p>	<p>물결만 &gt;</p>
출판사 리뷰	
<p>원 플러스 원의 기쁨, 삼각김밥 모양의 선물, 만 원에 네 번만 독소가 타지는 곳! 평범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가온 조금 특별한 편지집 이야기</p> <p>2013년 세계문학상 우수상 수상 『영향론 브르디스』로 데뷔한 후 일상적 현실을 위로 있게 그린 강렬한 작품과 인간의 내밀한 무왕을 가림한 상상력으로 불어난 소설로 장르를 오가며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쌓아올린 작가 김조연. 그의 다채 변백 창작 소설 『불타는 판도라』와 『나무위대』에서 출간되었다. 『불타는 판도라』은 청탁을 끝낼 후유증이 가득 차 있는 권력자들의 악독로 빚어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홉살의 삶과 죽음의 회색선을 추적하고 유머러스하게 담아낸 작품이다. 『영향론 브르디스』에서 망방론이라는 공간의 재창조 지지를 잘 활용해서 인간과 감정의 이글이꽃을 피운다는 서사의 오래된 틀에 청탁과 애의 공감장을 생성하고 또 하나의 흥미진진한 ‘동네 이야기’를 탄생시켰다. 서울에서 노숙인 생활을 하던 호랑이는 날씨가 어둡다 할 7월에 해상의 지평선 주위를 일순으로 건너오는 편지집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인지 궁금한 마음으로 읽었다. 그 결과로써 어떤 의식을 거행하든 안 좋아 하는 것도 좋다고 행동도 좋지 않은 선물을 제발 보내달라 수 있을 만큼의 여유를 갖게 하는데 원할. 의외의 것은 말을 꼭 잘해야 한다 아니라 주변사람들을 묘하게 사로잡으면서 사랑받으면서 사랑을 주는 것은 더더욱 오히려 되었다.</p> <p>편지집 넘치는 재치와 여러 가지 상투어를 유행어로 풍자하면서 ‘데 일거니와 있는 작가의 작품들이 이 소설에서도 똑똑한 개성인 시대를 지닌 인물들의 마음 움직여 동경처럼 서로 리듬타듯이 어떤 관계를 형성한다. 그 결과로써 어떤 의식을 거행하든 안 좋아 하는 것도 좋다고 행동도 좋지 않은 선물을 제발 보내달라 수 있을 만큼의 여유를 갖게 하는데 원할. 의외의 것은 말을 꼭 잘해야 한다 아니라 주변사람들을 묘하게 사로잡으면서 사랑받으면서 사랑을 주는 것은 더더욱 오히려 되었다.</p> <p>편지집 넘치는 재치와 여러 가지 상투어를 유행어로 풍자하면서 ‘데 일거니와 있는 작가의 작품들이 이 소설에서도 똑똑한 개성인 시대를 지닌 인물들의 마음 움직여 동경처럼 서로 리듬타듯이 어떤 관계를 형성한다. 그 결과로써 어떤 의식을 거행하든 안 좋아 하는 것도 좋다고 행동도 좋지 않은 선물을 제발 보내달라 수 있을 만큼의 여유를 갖게 하는데 원할. 의외의 것은 말을 꼭 잘해야 한다 아니라 주변사람들을 묘하게 사로잡으면서 사랑받으면서 사랑을 주는 것은 더더욱 오히려 되었다.</p>	
<p>원 플러스 원의 기쁨, 삼각김밥 모양의 선물, 만 원에 네 번만 독소가 타지는 곳! 평범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가온 조금 특별한 편지집 이야기</p>	
<p>2013년 세계문학상 우수상 수상 『영향론 브르디스』로 데뷔한 후 일상적 현실을 위로 있게 그린 강렬한 작품과 인간의 내밀한 무왕을 가림한 상상력으로 불어난 소설로 장르를 오가며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쌓아올린 작가 김조연. 그의 다채 변백 창작 소설 『불타는 판도라』와 『나무위대』에서 출간되었다. 『불타는 판도라』은 청탁을 끝낼 후유증이 가득 차 있는 권력자들의 악독로 빚어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홉살의 삶과 죽음의 회색선을 추적하고 유머러스하게 담아낸 작품이다. 『영향론 브르디스』에서 망방론이라는 공간의 재창조 지지를 잘 활용해서 인간과 감정의 이글이꽃을 피운다는 서사의 오래된 틀에 청탁과 애의 공감장을 생성하고 또 하나의 흥미진진한 ‘동네 이야기’를 탄생시켰다. 서울에서 노숙인 생활을 하던 호랑이는 날씨가 어둡다 할 7월에 해상의 지평선 주위를 일순으로 건너오는 편지집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인지 궁금한 마음으로 읽었다. 그 결과로써 어떤 의식을 거행하든 안 좋아 하는 것도 좋다고 행동도 좋지 않은 선물을 제발 보내달라 수 있을 만큼의 여유를 갖게 하는데 원할. 의외의 것은 말을 꼭 잘해야 한다 아니라 주변사람들을 묘하게 사로잡으면서 사랑받으면서 사랑을 주는 것은 더더욱 오히려 되었다.</p> <p>편지집 넘치는 재치와 여러 가지 상투어를 유행어로 풍자하면서 ‘데 일거니와 있는 작가의 작품들이 이 소설에서도 똑똑한 개성인 시대를 지닌 인물들의 마음 움직여 동경처럼 서로 리듬타듯이 어떤 관계를 형성한다. 그 결과로써 어떤 의식을 거행하든 안 좋아 하는 것도 좋다고 행동도 좋지 않은 선물을 제발 보내달라 수 있을 만큼의 여유를 갖게 하는데 원할. 의외의 것은 말을 꼭 잘해야 한다 아니라 주변사람들을 묘하게 사로잡으면서 사랑받으면서 사랑을 주는 것은 더더욱 오히려 되었다.</p> <p>편지집 넘치는 재치와 여러 가지 상투어를 유행어로 풍자하면서 ‘데 일거니와 있는 작가의 작품들이 이 소설에서도 똑똑한 개성인 시대를 지닌 인물들의 마음 움직여 동경처럼 서로 리듬타듯이 어떤 관계를 형성한다. 그 결과로써 어떤 의식을 거행하든 안 좋아 하는 것도 좋다고 행동도 좋지 않은 선물을 제발 보내달라 수 있을 만큼의 여유를 갖게 하는데 원할. 의외의 것은 말을 꼭 잘해야 한다 아니라 주변사람들을 묘하게 사로잡으면서 사랑받으면서 사랑을 주는 것은 더더욱 오히려 되었다.</p>	
<p>원 플러스 원의 기쁨, 삼각김밥 모양의 선물, 만 원에 네 번만 독소가 타지는 곳! 평범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가온 조금 특별한 편지집 이야기</p>	
<p>2013년 세계문학상 우수상 수상 『영향론 브르디스』로 데뷔한 후 일상적 현실을 위로 있게 그린 강렬한 작품과 인간의 내밀한 무왕을 가림한 상상력으로 불어난 소설로 장르를 오가며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쌓아올린 작가 김조연. 그의 다채 변백 창작 소설 『불타는 판도라』와 『나무위대』에서 출간되었다. 『불타는 판도라』은 청탁을 끝낼 후유증이 가득 차 있는 권력자들의 악독로 빚어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홉살의 삶과 죽음의 회색선을 추적하고 유머러스하게 담아낸 작품이다. 『영향론 브르디스』에서 망방론이라는 공간의 재창조 지지를 잘 활용해서 인간과 감정의 이글이꽃을 피운다는 서사의 오래된 틀에 청탁과 애의 공감장을 생성하고 또 하나의 흥미진진한 ‘동네 이야기’를 탄생시켰다. 서울에서 노숙인 생활을 하던 호랑이는 날씨가 어둡다 할 7월에 해상의 지평선 주위를 일순으로 건너오는 편지집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인지 궁금한 마음으로 읽었다. 그 결과로써 어떤 의식을 거행하든 안 좋아 하는 것도 좋다고 행동도 좋지 않은 선물을 제발 보내달라 수 있을 만큼의 여유를 갖게 하는데 원할. 의외의 것은 말을 꼭 잘해야 한다 아니라 주변사람들을 묘하게 사로잡으면서 사랑받으면서 사랑을 주는 것은 더더욱 오히려 되었다.</p> <p>편지집 넘치는 재치와 여러 가지 상투어를 유행어로 풍자하면서 ‘데 일거니와 있는 작가의 작품들이 이 소설에서도 똑똑한 개성인 시대를 지닌 인물들의 마음 움직여 동경처럼 서로 리듬타듯이 어떤 관계를 형성한다. 그 결과로써 어떤 의식을 거행하든 안 좋아 하는 것도 좋다고 행동도 좋지 않은 선물을 제발 보내달라 수 있을 만큼의 여유를 갖게 하는데 원할. 의외의 것은 말을 꼭 잘해야 한다 아니라 주변사람들을 묘하게 사로잡으면서 사랑받으면서 사랑을 주는 것은 더더욱 오히려 되었다.</p> <p>편지집 넘치는 재치와 여러 가지 상투어를 유행어로 풍자하면서 ‘데 일거니와 있는 작가의 작품들이 이 소설에서도 똑똑한 개성인 시대를 지닌 인물들의 마음 움직여 동경처럼 서로 리듬타듯이 어떤 관계를 형성한다. 그 결과로써 어떤 의식을 거행하든 안 좋아 하는 것도 좋다고 행동도 좋지 않은 선물을 제발 보내달라 수 있을 만큼의 여유를 갖게 하는데 원할. 의외의 것은 말을 꼭 잘해야 한다 아니라 주변사람들을 묘하게 사로잡으면서 사랑받으면서 사랑을 주는 것은 더더욱 오히려 되었다.</p>	
<p>원 플러스 원의 기쁨, 삼각김밥 모양의 선물, 만 원에 네 번만 독소가 타지는 곳! 평범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가온 조금 특별한 편지집 이야기</p>	
<p>2013년 세계문학상 우수상 수상 『영향론 브르디스』로 데뷔한 후 일상적 현실을 위로 있게 그린 강렬한 작품과 인간의 내밀한 무왕을 가림한 상상력으로 불어난 소설로 장르를 오가며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쌓아올린 작가 김조연. 그의 다채 변백 창작 소설 『불타는 판도라』와 『나무위대』에서 출간되었다. 『불타는 판도라』은 청탁을 끝낼 후유증이 가득 차 있는 권력자들의 악독로 빚어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홉살의 삶과 죽음의 회색선을 추적하고 유머러스하게 담아낸 작품이다. 『영향론 브르디스』에서 망방론이라는 공간의 재창조 지지를 잘 활용해서 인간과 감정의 이글이꽃을 피운다는 서사의 오래된 틀에 청탁과 애의 공감장을 생성하고 또 하나의 흥미진진한 ‘동네 이야기’를 탄생시켰다. 서울에서 노숙인 생활을 하던 호랑이는 날씨가 어둡다 할 7월에 해상의 지평선 주위를 일순으로 건너오는 편지집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인지 궁금한 마음으로 읽었다. 그 결과로써 어떤 의식을 거행하든 안 좋아 하는 것도 좋다고 행동도 좋지 않은 선물을 제발 보내달라 수 있을 만큼의 여유를 갖게 하는데 원할. 의외의 것은 말을 꼭 잘해야 한다 아니라 주변사람들을 묘하게 사로잡으면서 사랑받으면서 사랑을 주는 것은 더더욱 오히려 되었다.</p> <p>편지집 넘치는 재치와 여러 가지 상투어를 유행어로 풍자하면서 ‘데 일거니와 있는 작가의 작품들이 이 소설에서도 똑똑한 개성인 시대를 지닌 인물들의 마음 움직여 동경처럼 서로 리듬타듯이 어떤 관계를 형성한다. 그 결과로써 어떤 의식을 거행하든 안 좋아 하는 것도 좋다고 행동도 좋지 않은 선물을 제발 보내달라 수 있을 만큼의 여유를 갖게 하는데 원할. 의외의 것은 말을 꼭 잘해야 한다 아니라 주변사람들을 묘하게 사로잡으면서 사랑받으면서 사랑을 주는 것은 더더욱 오히려 되었다.</p> <p>편지집 넘치는 재치와 여러 가지 상투어를 유행어로 풍자하면서 ‘데 일거니와 있는 작가의 작품들이 이 소설에서도 똑똑한 개성인 시대를 지닌 인물들의 마음 움직여 동경처럼 서로 리듬타듯이 어떤 관계를 형성한다. 그 결과로써 어떤 의식을 거행하든 안 좋아 하는 것도 좋다고 행동도 좋지 않은 선물을 제발 보내달라 수 있을 만큼의 여유를 갖게 하는데 원할. 의외의 것은 말을 꼭 잘해야 한다 아니라 주변사람들을 묘하게 사로잡으면서 사랑받으면서 사랑을 주는 것은 더더욱 오히려 되었다.</p>	
<p>원 플러스 원의 기쁨, 삼각김밥 모양의 선물, 만 원에 네 번만 독소가 타지는 곳! 평범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가온 조금 특별한 편지집 이야기</p>	
<p>2013년 세계문학상 우수상 수상 『영향론 브르디스』로 데뷔한 후 일상적 현실을 위로 있게 그린 강렬한 작품과 인간의 내밀한 무왕을 가림한 상상력으로 불어난 소설로 장르를 오가며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쌓아올린 작가 김조연. 그의 다채 변백 창작 소설 『불타는 판도라』와 『나무위대』에서 출간되었다. 『불타는 판도라』은 청탁을 끝낼 후유증이 가득 차 있는 권력자들의 악독로 빚어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홉살의 삶과 죽음의 회색선을 추적하고 유머러스하게 담아낸 작품이다. 『영향론 브르디스』에서 망방론이라는 공간의 재창조 지지를 잘 활용해서 인간과 감정의 이글이꽃을 피운다는 서사의 오래된 틀에 청탁과 애의 공감장을 생성하고 또 하나의 흥미진진한 ‘동네 이야기’를 탄생시켰다. 서울에서 노숙인 생활을 하던 호랑이는 날씨가 어둡다 할 7월에 해상의 지평선 주위를 일순으로 건너오는 편지집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인지 궁금한 마음으로 읽었다. 그 결과로써 어떤 의식을 거행하든 안 좋아 하는 것도 좋다고 행동도 좋지 않은 선물을 제발 보내달라 수 있을 만큼의 여유를 갖게 하는데 원할. 의외의 것은 말을 꼭 잘해야 한다 아니라 주변사람들을 묘하게 사로잡으면서 사랑받으면서 사랑을 주는 것은 더더욱 오히려 되었다.</p> <p>편지집 넘치는 재치와 여러 가지 상투어를 유행어로 풍자하면서 ‘데 일거니와 있는 작가의 작품들이 이 소설에서도 똑똑한 개성인 시</p>	

[ajax로 책 내용 불러오기  
/ \$.get으로 txt 가져오기]

회원리뷰

416명의 회원이 평가한 평균별점

★★★★★ 9.2 / 10.0

내용 ★★★★★ 편집/디자인 ★★★★★

구매자 별점

★★★★★ 76%

★★★★☆ 19%

★★★★☆ 4%

★★★☆☆ 0%

★★☆☆☆ 0%

연령대별 평균 점수

8.0 10대

9.0 20대

9.0 30대

9.0 40대

9.0 50대

한줄평

평점 ★★★★★

한글 기준 50자까지 작성 가능

0 / 50

등록

★★★★★

재미있네요 추천합니다

h\*\*\*\*4 | 2023.02.23 | [좋아요](#)

★★★★★

재미있게 잘 읽었어요

j\*\*\*\*1 | 2023.02.23 | [좋아요](#)

★★★★★

영상을 보는 듯 잘 표현된 글이 참 좋네요 감추

c\*\*\*\*9 | 2023.02.20 | [좋아요](#)

★★★★★

재미있어요

u\*\*\*\*0 | 2023.02.18 | [좋아요](#)

★★★★★

좋아요!

f\*\*\*\*3 | 2023.02.16 | [좋아요](#)

★★★★★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h\*\*\*\*8 | 2023.02.15 | [좋아요](#)

«

<

1

2

3

4

5

>

»

전체 리뷰

구매 리뷰

교한 / 교란	물질 안내
반물/교란 발현	
이탈을 > 주동관리> 주동·책임·타개 > 주동초지 > 반물(교란 신행) [1] 이탈 > 반물(교란/관입) 또는 고전선역 (1544-1900) * 요르탄, 하위배출 중점, 키트의 주성치 [11] 섹팅+반물(교란/행정) 또는 고려면적 (1544-1900)	
반물/교란 가능 기간	
반사반복력 탈주 수형 후경 후 2년 이내 상대적 결함 및 제어원칙과 다중 경우 문제집 발견 후 30일 이내	
반물 / 교란 비용	
연립 혹은 구획적으로 인한 반물(교란은) 반물로 교육 부담	
반물 / 교란 불가 사항	
1) 소제어에 직접 입는 사유로 상용 들어 손실 조는 특수인 경우 단기 적으로 해를 끼칠 가능성 없음 2) 소비자요 사품, 포장 개편해 소비 상품 행위 가치가 언제나 감소할 경우 3) 화염, 습도, 가간비율(약자서리 포함) 등 3) 자연적 기온 이상 사유로 부득불 폐업 한 경우 4) 광학신(VAR), 소프트웨어, 관리책, 합작, 영상 확보법 4) 소비자 요구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운영 제재하는 상품의 경우 ([가짜수조제조]) 5) 단기간 전산처리 어려움, 인터넷 동종 1회 사용 디스크로만 변질된 경우 6) 시간적 경계에 의해 제한되어 관련한 정도로 거리가 없게끔 감소한 경우 7) 연료유저에 들어서며 소비자에게 관련 법률이 성하는 소비자 정책상의 제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품 품질	
국민서비스품질 지체 사망에 의해 물질/거짓말 수 있으며, 물질 시 간접 경험에 대해서는 이해도와 문자와 인식대로 존속한다.	
소비자 피해보상 항목 지정에 따른 배상	
1) 상품화 불확에 의한 교환, A/S, 환불, 용납보증 및 리베이트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보호법 제2장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2) 다음 내용 외 합의조건에 따른 책임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입법에 따라 처리함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10px;">상품 설명에 반물(교란)을 포함한 것은? 이는 모두 그 내용을 우선순위로 합니다.. (합계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div>	
(*) 일러의 서명	
사업자 정보 등록 완료 <a href="#">▶</a>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고객센터    사업자정보    판매처 제휴    구매처 제휴    임대차계약    회사 소개 ▶	
Copyright © 2022 All rights reserved.	



## 4. UI 구현 #MAIN

※ KAKAO 오픈 API 주소를 통해 AJAX를 이용해 책 정보 불러오기  
- 각 박스에 원하는 “책 제목”을 검색해 하나씩 불러왔습니다

```
<div class="best-all-box">
  <h3>지금 서점 베스트셀러</h3>
  <div class="best-book-wrap">
    <div class="best-box"></div>
    <div class="best-box"></div>
    <div class="best-box"></div>
    <div class="best-box"></div>
    <div class="best-box"></div>
    <div class="best-box"></div>
  </div>
</div>
```

HTML

```
.best-all-box {
  width: 1159px;
  margin: 0 auto;
  margin-bottom: 40px;
}
h3 {
  text-align: left;
  padding: 16px 10px;
}

.best-book-wrap {
  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

.best-box {
  width: 100%;
  height: 330px;
}

img {
  width: 155px;
  border-top-right-radius: 5px;
  border-bottom-right-radius: 5px;
}

h4 {
  width: 145px;
  height: 40px;
  margin: 0 0 10px 10px;
  text-align: left;
  font-family: 'SUIT-Regular';
}

h5 {
  margin: 0 0 10px 10px;
  text-align: left;
  color: #888888;
  font-family: 'SUIT-Regular';
}
```

SCSS

```
<script> //베스트셀러 best-box
//1~3번 박스
$.ajax({
  method: "GET",
  url: "https://dapi.kakao.com/v3/search/book?target=title",
  data: { query: "불편한 편의점" },
  headers: { Authorization: "KakaoAK ceda120f981fd447959e3c1bf485097d" }
})

.done(function (msg) {
  // console.log(msg);
  var box = document.getElementsByClassName('best-box');

  for (var i = 0; i < 3; i++) {
    $(".best-box").eq(i).append("<a href='sub.html'><img src='" + msg.documents[i].thumbnail + "'></a>");
    $(".best-box").eq(i).append("<h4>" + msg.documents[i].title + "</h4>");
    $(".best-box").eq(i).append("<h5>" + msg.documents[i].authors + "</h5>");
    $(".best-box").eq(2).append("<img src='img/audio-icon.png' class='best-box-icon'>");
    $(".best-box").eq(2).append("<img src='img/allread.png' class='best-box-icon1'>");
  }
});

$.ajax({ // 4번 박스
  method: "GET",
  url: "https://dapi.kakao.com/v3/search/book?target=title",
  data: { query: "이 사랑이" },
  headers: { Authorization: "KakaoAK ceda120f981fd447959e3c1bf485097d" }
})

.done(function (msg) {
  $(".best-box").eq(3).append("<img src='" + msg.documents[0].thumbnail + "'>");
  $(".best-box").eq(3).append("<h4>" + msg.documents[0].title + "</h4>");
  $(".best-box").eq(3).append("<h5>" + msg.documents[0].authors + "</h5>");
});

$.ajax({ // 5번 박스
  method: "GET",
  url: "https://dapi.kakao.com/v3/search/book?target=title",
  data: { query: "세이노" },
  headers: { Authorization: "KakaoAK ceda120f981fd447959e3c1bf485097d" }
})

.done(function (msg) {
  $(".best-box").eq(4).append("<img src='" + msg.documents[0].thumbnail + "'>");
  $(".best-box").eq(4).append("<h4>" + msg.documents[0].title + "</h4>");
  $(".best-box").eq(4).append("<h5>" + msg.documents[0].authors + "</h5>");
});
});
```

javascript

지금 서점 베스트셀러



불편한 편의점(40만 부 기념 빛꽃 에디션)  
김호연



불편한 편의점 2(단풍 에디션)  
김호연



불편한 편의점(큰글 자도서)  
김호연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이치조 미사키



세이노의 가르침  
세이노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김해남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웨인 다이어

## 4. UI 구현 #MAIN

※ 스크롤 이벤트

- scrollTop의 값에 따라 opacity의 값과 scale 값을 다르게 하여 이벤트를 주었습니다

```
$(window).scroll(function(){
    var scroll=$(window).scrollTop();
    // console.log(scroll);

    // logo 이미지 변경하기
    if (scroll < 799) {
        $(".logo img").attr("src", "img/logo.png");
    }
    if (scroll > 800) {
        $(".logo img").attr("src", "img/logo1.png");
    }

    if(scroll<200){
        $(".booklist-wrap h2").css({"transform":"translateY(50px)","opacity":"0"});
        $(".booklist-wrap p").css({"transform":"translateY(50px)","opacity":"0"});
    }
    if(scroll>300){
        $(".booklist-wrap h2").css({"transform":"translateY(0px)","opacity":"1"});
        $(".booklist-wrap p").css({"transform":"translateY(0px)","opacity":"1"});
    }
    if(scroll>400){
        $(".slider-box-1>img").css({"transform":"translateY(0px)","opacity":"1"});
    }
    if(scroll>700){
        $(".slider-box-1>img").css({"transform":"translateY(50px)","opacity":"0"});
        $(".video-box h2").css({"transform":"translateY(50px)","opacity":"0"});
        $(".video-box p").css({"transform":"translateY(50px)","opacity":"0"});
    }
    if(scroll>1170){
        $(".booklist-wrap h2").css({"transform":"translateY(50px)","opacity":"0"});
        $(".booklist-wrap p").css({"transform":"translateY(50px)","opacity":"0"});
    }
    if(scroll>1200){
        $(".video-box h2").css({"transform":"translateY(0px)","opacity":"1"});
        $(".video-box p").css({"transform":"translateY(0px)","opacity":"1"});
    }
}
```

javascript

```
if(scroll<5100){
    $(".pick-img-box img").eq(2).css("transform","scale(0.3)");
    $(".pick-img-box img").eq(4).css("transform","scale(0.3)");
    $(".pick-img-box img").eq(3).css("transform","scale(0.3)");
    $(".pick-img-box img").eq(5).css("transform","scale(0.3)");
}
if (scroll > 5100) {
    $(".pick-img-box img").eq(2).css("transform", "scale(1)");
    $(".pick-img-box img").eq(4).css("transform", "scale(1)");
}
if(scroll>5300){
    $(".pick-img-box img").eq(3).css("transform","scale(1)");
    $(".pick-img-box img").eq(5).css("transform","scale(1)");
}

$(".pick-img-box img").eq(2).css("transform","scale(0.3)");
$(".pick-img-box img").eq(4).css("transform","scale(0.3)");
$(".pick-img-box img").eq(3).css("transform","scale(0.3)");
$(".pick-img-box img").eq(5).css("transform","scale(0.3)");
}
```

javascript

## 4. UI 구현 #SUB

※ 두 번째 제목을 누르면 누른 li에 css가 변경되고 두 번째 내용 보이게 하기

```
<div class="with-buy">
  <ul>
    <li>
      <a href="#none">
        
      </a>
      <div class="with buy_text">
        <p>불편한 편의점 세트</p>
        <p>김호연 저 | 나무옆의자</p>
        <p><span>25,200원</span><span>(10% 할인)</span></p>
      </div>
    </li>
    <li>...
    </li>
    <li>...
    </li>
    <li>...
    </li>
    <li>...
    </li>
    <li>...
    </li>
  </ul>
</div>
```

HTML

```
.with-buy {
  ul {
    &:nth-of-type(1) {
      padding: 45px 20px;
      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li { ...
    }

    &:nth-of-type(2) {
      display: none;
      padding: 45px 20px;
      justify-content: space-around;

      li { ...
    }
  }
}
```

SCSS

```
.manybuy-list {
  ul {
    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li {
      width: 599px;
      padding: 20px 0;
      background-color: #f8f8f8;
      text-align: center;
      border-bottom: 1px solid #e5e5e5;
      cursor: pointer;

      &:nth-of-type(1) {
        border-right: 1px solid #e5e5e5;
      }
      span {
        color: #fa9319;
      }
    }
    .mb-click {
      background-color: #fff;
      border-bottom: none;
    }
  }
}
```

SCSS

```
$(".manybuy-list ul li").click(function(){
  var mb_num=$(this).index();

  $(".with-buy ul").eq(mb_num).show();
  $(".with-buy ul").eq(mb_num).show().css("display","flex");
  $(".with-buy ul").eq(mb_num).siblings().hide();
  $(this).addClass("mb-click");
  $(this).siblings().removeClass("mb-click");
});
```

javascript

이 책을 구입하신 분들이 함께 산 책

이 책을 구입하신 분들이 많이 산 책



불편한 편의점 세트  
김호연 저 | 나무옆의자  
25,200원(10% 할인)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평행우주 에디션  
매트 헤이그 | 노진선 역...  
14,220원(10% 할인)



달려구트 꿈 백화점 1,2  
세트  
이미에 지 | 팩토리안  
24,840원(10% 할인)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  
점입니다  
황보람 지 | 클레이하...  
13,500원(10% 할인)



오늘 밤, 세계에서 사라  
진 책도 세트  
이지소 미사키 지/권영...  
25,200원(10% 할인)



작별인사  
김명아 지 | 북북서가  
25,200원(10% 할인)

## 4. UI 구현 #SUB

※ 누르면 해당하는 위치(offset) 으로 가게 하기 + 그 위치로 이동하면서 해당 버튼에 css 넣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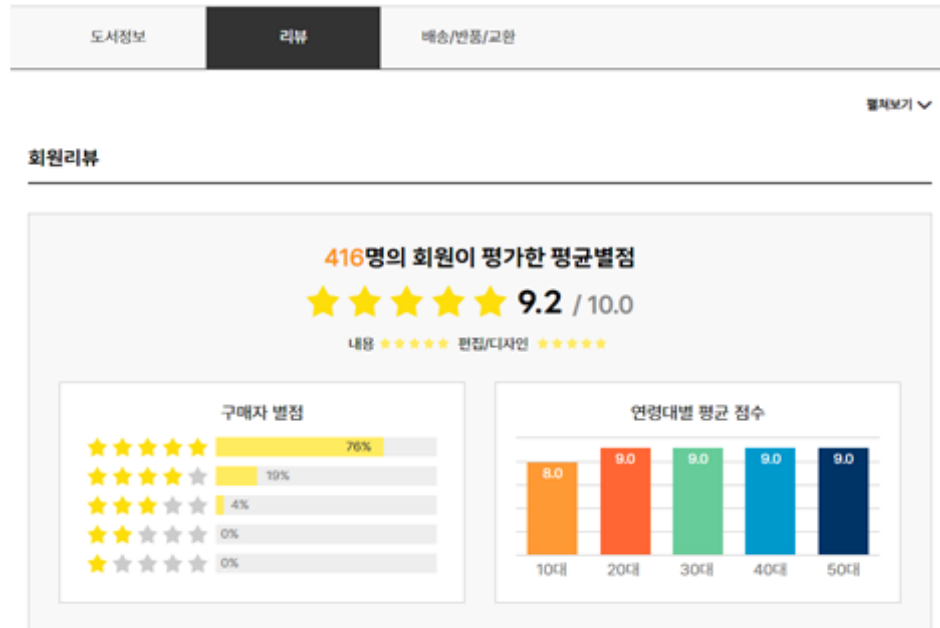
```
<div class="choice-nav-wrap">
  <ul>
    <li class="cho-nav-bg">
      <a href="#none" class="cho-nav-font">도서정보</a>
    </li>
    <li>
      <a href="#none">리뷰</a>
    </li>
    <li>
      <a href="#none">배송/반품/교환</a>
    </li>
  </ul>
```

HTML

```
.cho-nav-bg{
  background-color: #333;
}
.cho-nav-font{
  color: #fff;
}
```

SCSS

#none으로 한 이유는 해당하는 # 태그로 설정 시 리뷰 li에 css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none으로 설정함



```
// 리뷰, 배송/반품/교환 버튼 누르면 해당 자리로 이동하기
$(".choice-nav-wrap ul:nth-of-type(1) li:nth-of-type(1)").click(function(){
  let intro=$("#introduce");
  let offset=intro.offset().top-160;
  $("html").animate({scrollTop:offset},300);
});

$(".choice-nav-wrap ul:nth-of-type(1) li:nth-of-type(2)").click(function(){
  let review=$("#review");
  let offset=review.offset().top-210;

  $("html").animate({scrollTop:offset},300);
});

$(".title2-1 ul:nth-of-type(3) li:nth-of-type(2) a").click(function(){
  let review=$("#review");
  let offset=review.offset().top-210;

  $("html").animate({scrollTop:offset},300);
});

$(".choice-nav-wrap ul:nth-of-type(1) li:nth-of-type(3)").click(function(){
  let delivery=$("#delivery");
  let offset=delivery.offset().top-150;

  $("html").animate({scrollTop:offset},300);
});
```

javascript

```
if(scroll>9100){
  $(".choice-nav-wrap ul:nth-of-type(1) li").eq(1).addClass("cho-nav-bg");
  $(".choice-nav-wrap ul:nth-of-type(1) li").eq(1).children().addClass("cho-nav-font");
  $(".choice-nav-wrap ul:nth-of-type(1) li").eq(1).siblings().removeClass("cho-nav-bg");
  $(".choice-nav-wrap ul:nth-of-type(1) li").eq(1).siblings().children().removeClass("cho-nav-font");
}
```

javascript

## 5. 평가 #소감

AJAX로 오픈 API 데이터를 불러오면서 제가 검색한 내용에 따라 다른 데이터가 보이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get”으로 txt 파일을 불러오는 방식을 써 보니 내용이 많을 경우 HTML이 길어져 복잡했는데 깔끔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클론 코딩을 처음 해 봤는데 같은 걸 보고 기존 사이트의 구현 방식과 제 방식이 어떻게 다른 지 알게 됐고 새로운 방식도 배우게 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